

정읍 어르신 살던 곳에서 건강 노후를

6억원 투입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 3월 전국 시행 앞 실무 간담회 보건의료·일상 지원 등 특화서비스

정읍시가 어르신들이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촘촘한 '의료·요양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정읍시는 최근 탑가정의학과의원 등 9개 협약기관과 실무 간담회를 열어 오는 3월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전국 시행에 앞서 빈틈없는 서비스 제공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탑가정의학과의원 ▲회평한의원 ▲정읍시 물리치료사회 ▲정읍주거복지센터 ▲다 솔재가복지센터 ▲정읍시니어클럽 ▲정읍시립요양병원 ▲정읍아산병원 ▲정읍시노인복지관 등 9개 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무자가 참석했다.

시는 올해 기존 국가돌봄 서비스가 채우지 못하는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시비 5억 9000만원을 투입한다.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주거 등 4개 분야에서 총 9종의 지역특화서비스를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이는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도평생 살던 자택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양방과 한방을 아우르는 방



정읍시는 지난 20일 탑가정의학과의원 등 9개 협약기관과 실무 간담회를 열어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에 앞서 빈틈없는 서비스 제공 방안을 논의했다.

〈정읍시 제공〉

계, 틈새 요양 돌봄, 건강 맞춤형 영양 식사, 안심 주거환경 개선, 방문 목욕 등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각 기관의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계획을 발표하고, 대상자별 특이사항과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더 나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를 통해 장기적으로 방제비용을 절감하고 기후변화에도 강한 숲을 조성할 수 있는 수종 전환 방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제 예찰단을 가동해 산림 인접 지역과 가시권 외곽 지역의 예찰을 강화한다. 인위적 인화산을 차단하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김종신 고창군청 산림녹지과장은 "소중한 산림 자산인 소나무를 건강하게 지켜낼 것"이라며 "군민들도 주변에 말라 죽어가는 소나무를 발견할 경우 즉시 산림녹지과로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 총력

8개 읍·면 9억원 투입…매개충 활동 전 4월까지 집중 방제

고창군이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방제 사업에 총력을 기울친다. 사업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활동 시기 이전인 4월 말까지 완료로 추진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나무 조직 내에 재선충을 끌어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병이다. 한번 감염되면 회복이 불가능해 초기 발전과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은 관내 반출 금지구역 8개 읍·면(1만186㏊)을 중심으로 매개충이 활동을 시작하기 전인 4월 말까지 '집중 방제 기간'으로 정하고 총력 대응에 돌입한다.

주요 가로수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예방 사업을 추진한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복과 감염 우려복을 모두 베고, 병해충 저항성이 강한 활엽수로 바꾼다. 이

세 이상 80세 이하(1946년 1월 1일~1975년 12월 31일) 출생자다.

시는 올해는 총 647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으로 신청자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선정된 여성농업인은 총 22만원의 견진비 중 90%인 19만8000원을 시가 지원하므로 본인은 2만2000원만 자부담하면 된다.

3월 중 지원 대상자가 선정되면 원진직업병관리재단 지정 정읍아산병원을 통해 상반기 중 견진이 진행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근골격계·심혈관계 질환 등 5개 항목…다음 달 27일까지 접수

정읍시가 여성농업인들의 직업병 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월27일까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신청을 접수한다.

반복적 농작업으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 이 사업은 시가 여성농업인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주요 검진 항목은 ▲근골격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골절·손상 위험도 ▲폐활량 ▲농약 노출에 따른 중독 여부 검사 등 5개다.

검진 결과에 따라 농작업 관련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전문 의료진의 상담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 중 짹수 연도에 출생한 51

남원 노인복지회관 건립 '순항'

어르신 복합 복지시설…동충동 일원 6월 완공 목표

남원시가 어르신들의 복합 복지시설인 노인복지회관을 오는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는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문화·여가·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회관 건립 사업을 계획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남원시는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기존 노인복지시설의 기능 보완과 함께 보다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복지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노인복지회관은 남원시 동충동 394-4번지와 395-2번지 일원에 조성되며 기존 (사)대한노인

회 남원시지회 현 건물을 철거한 뒤 신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건물은 연면적 약 958㎡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계획돼 있으며 다목적실과 프로그램실, 대강당, 방송실, 사무실, 식당, 옐리베이터 설치 등 어르신 이용 중심의 다양한 공간을 갖춘 복합 복지시설로 조성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52억 5600만원으로 2023년도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10억원과 2025년도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시비 32억 5600만원이 투입된다. 남원시는 국·도비와 시비를 포함해 올해 까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 '노상놀이야' 전북 공연 평가 최우수

전통 농악 현대적 재해석…고창농악전수관·아트컴퍼니 고풍 선정



고창읍성 앞에서 고창농악전수관과 아트컴퍼니 고풍이 공동 연출한 고창농악 거리극 '노상놀이야'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고창군 제공〉

고창읍성 앞에서 고창농악전수관과 아트컴퍼니 고풍이 공동 연출한 고창농악 거리극 '노상놀이야'를 선보였던 고창농악전수관과 아트컴퍼니 고풍이 전북문화관광재단의 '5개 시군 공연 평가'에서 최우수 단체로 선정됐다.

고창군은 재단이 공연 운영의 완성도, 행정 협력도 등을 종합 평가한 심사에서 '노상놀이야'를 공동 연출한 농악전수관과 고풍이 '전통 농악의 미학과 공동체적 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의미 있는 무대를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공연은 길놀이와 거점공연이 유기적으로 구성된 무대 운영을 통해 관객의 몰입도를 끌어 올렸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서 농장 생활 해보고 귀농하세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입주자 모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 텃밭, 실습농장, 공동 창고, 접견실 등도 갖췄다.

최대 100만원의 보증금과 소정의 교육료만 내면 1년간 이용할 수 있다.

남원으로 귀농하려는 19~65세의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은 우선 모집한다.

실습농장은 남원 주生면에 원룸형 4가구와 투룸형 6가구, 게스트하우스 2가구 등으로 조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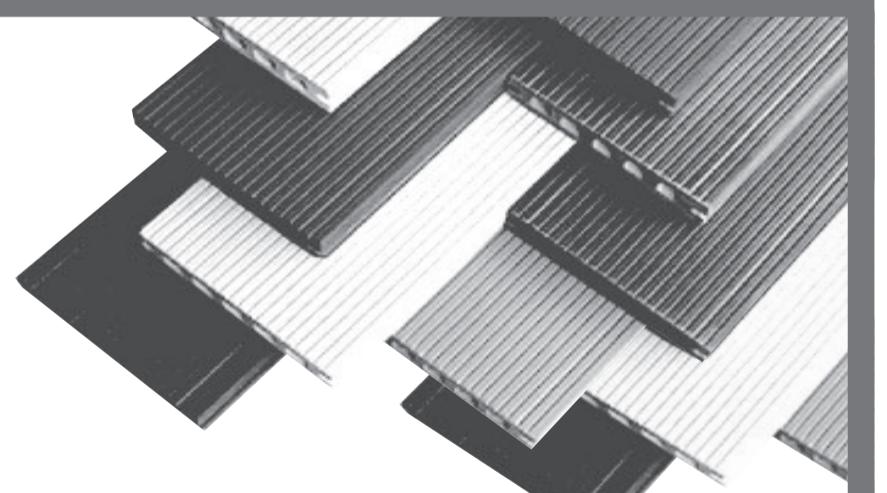
직접 농사를 지어보고 영농과 농촌 생활에 대한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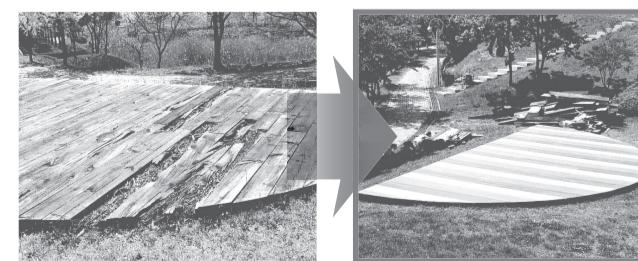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